

##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운영방안

박인호(인천대학교 교수, 과학영재교육센터 소장)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은 평준화 교육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성”이란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평준화 교육과정이 잠재적 능력을 소유한 아동들을 발굴하지 못한 채 보통 수준의 아동들과 같이 능력의 평준화 현상을 초래하게 하였다면 현재의 “평등성”이라는 말은 수준에 맞는 내용을 제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개인능력과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을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의 잠재적 능력 계발 및 소질발휘의 기회제공이라는 형태로 바뀌면서 영재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영재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영재학교”라는 기관의 설립,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영재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나 현재 존재하는 영재교육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영재교육기관의 설립방안으로 초등단계부터 고등단계까지 모두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교육기관의 설립으로 양질의 우수 고급인력 배출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국 지역별(중소도시 포함)로 초등영재학교부터 고등영재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운영면에서는 영재교육 수혜대상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설립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설 립 방 안

### 1) 초등영재학교의 설립

초등단계의 아동들은 잠재적 능력이 무한하기에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영역별로 영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가 아니고 그 대상도 무한하기에 많은 초등영재교육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정서적으로 사회성이 발달되는 시기이므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전국 각 지역별(중소도시 포함)로 초등영재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신규로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의 학교를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으나 신규 설립을 추진한다면 국가의 재정적인 면에서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상의 교육적 환경여건이 마련되어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 2) 중등영재학교의 설립

초등영재학교 설립이 전국 모든 중소도시를 포함한다면 중등영재학교의 설립은 초등단계에서 중등단계로의 보다 우수한 영재아동 선발 차원에서 교육대상을 축소 선발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 廣城市 및 道를 중심으로 5~6개의 학교를 중심으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초등단계에서 영재성이 판별되는 우수한 학생에 대해 소수 엘리트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속성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비수혜대상의 교육기회확대 차원에서 원격 영재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영재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들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에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 3) 고등영재학교의 설립

고등단계의 영재교육은 초등단계와 중등단계의 소수 엘리트 아동들에게 계속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등영재학교는 현재 과학고등학교가 존재를 하고 과학분야의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학고등학교와의 마찰이 없고 서로 존립할 수 있는 방안의 고등영재학교가 설립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전국에 廣域市 및 道를 중심으로 2~3개 학교 정도의 설립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과학분야가 아닌 사회/인문/예체능계열의 영재성이 나타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재학교가 설립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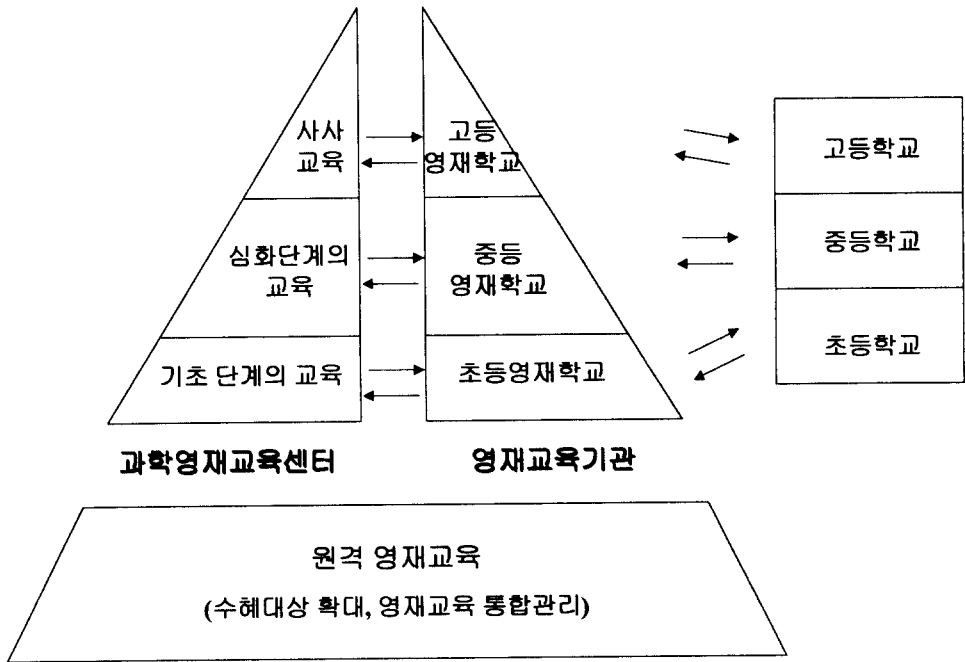
## 2. 운영 방안

### 1) 전체적인 운영방안

영재교육기관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피라미드형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

비록 초기에는 영재성이 발굴되지 않았더라도 원격영재교육을 통해 아동의 영재성을 발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여 영재성이 판별되면 영재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재성이 판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통한 영역별로 영재성을 발굴하기 위해 기초단계의 교육을 실시하며, 영역별로 영재성이 발굴된 아동들에 대해 그 분야의 심화단계 교육을 통해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단계를 수행하면서 영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대일 사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분야의 영재성과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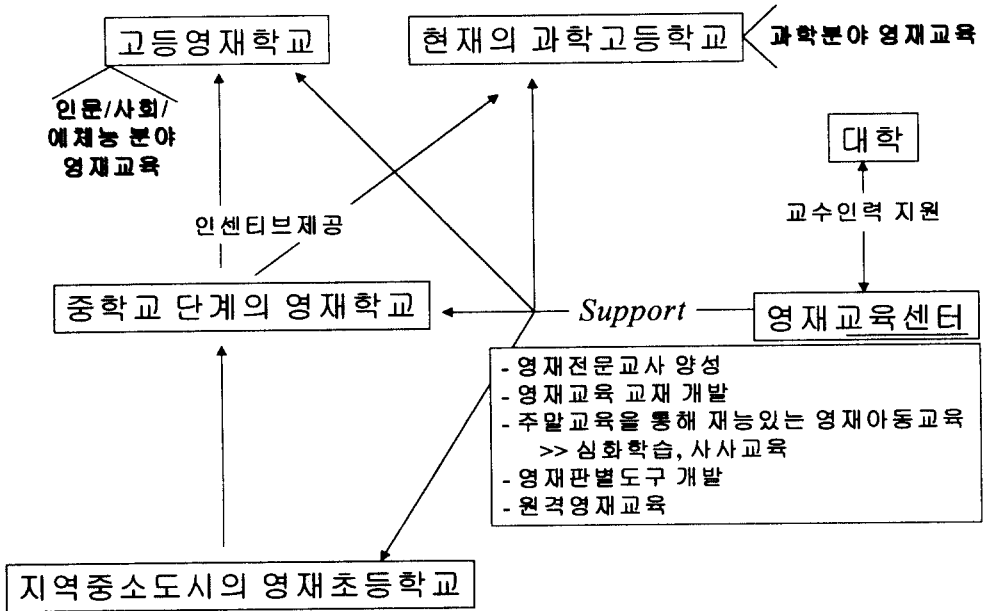
하지만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영재성이 도출되는 시기가 개인에 따라 영재성이 드러나는 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 학교 또는 원격영재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영재성이 발굴되는 학생에 대해 영재학교에 입학하여 영재성을 계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영재교육기관과 과학영재교육센터와의 상호연관도 >

## 2)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교육원과의 연계 운영 방안

영재학교 설립 후 운영적인 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교육원과의 연계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다.



### (1) 영재교육센터와의 연계 운영 방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는 과학이라는 특화된 성격으로 과학과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영재학교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에서는 영재전문교사 자격연수 및 양성 프로그램 개발, 영재교육 교재개발, 영재판별도구의 개발, 마지막으로 영재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가운데 영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학생에 대해 주말교육을 통한 심화학습, 일대일 사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에서는 과학분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학의 협조를 얻어 과학분야 및 그 외의 다른 분야의 영재교육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로서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영재교육은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2) 과학고등학교와의 연계 운영 방안

현재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이라는 특화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영재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과학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영재학교를 설립하여 중등영재학교에서 이수한 학생들을 과학분야와 사회/인문/예체능분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계 운영하면 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과학고등학교가 영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일반 어느 학교보다도 시설 및 우수 교사가 확보되어 있어 설립 운영하는 면에서 재정적으로 절감되기 때문이다.